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92)	봉헌 (212)	성체 (506)	파견 (93)
---------	---------	----------	----------	---------

제1독서 | 이사 7,10-14

화답송 | 시편 24(23),1-2.3-4.7.8.5-6(◎ 7과 10과 참조)

-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2독서 | 로마 1,1-7

복음환호송 | 마태 1,23

-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 마태 1,18-24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5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2/22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29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5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36	\$6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1 월 5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에페소서):**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 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탄 미사 일정

성탄 이브 미사 12/14(화) 저녁 10:00

성탄 미사: 12/25(수) 오전 9:30 - 영어, 한국어

오전 11:00 - 스페인어

말씀의 이삭

적응과 포기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중화관구)-

제가 필리핀으로 오기 전까지 경험해온 성탄절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 놓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빨간 털모자와 털코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겨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맞은 첫 성탄절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캐럴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보이는 나무들이 모두 초록색이고,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여름옷을 입고 있지만 오직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만 털모자와 털코트를 입고 있는 아주 새롭고 신기하다 못해 어색하기까지 한 풍경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살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고 어색한 것이 성탄절뿐이었겠습니까? 날씨, 언어, 음식, 문화 등 많은 것들이 새롭고, 신기하고,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들도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법,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둘씩 적응되고 편안해집니다. 물론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력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힌다 해도 익숙했던 날씨, 음식, 문화 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거나 그 속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결코 새로운 것에 적응하거나 익숙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살면서

필리핀 음식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 땀기는 음식은 여전히 한국 음식입니다. 또한 한국에 살 때 그렇게 추위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코끝이 찡하도록 추운 겨울 날씨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잊힌 듯해도 이미 몸속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한 단체 활동, 자선 활동, 성경 공부, 피정 등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부족했거나 몰랐던 것들을 채우고 배워가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 이미 배어 있는 이기심이나 시기심, 부정적인 욕심 등 좋지 않은 나를 하나씩 포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참다운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가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더불어 '무엇무엇을 포기하겠다'라는 계획과 결심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복음묵상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 1:23-

-서울주보 에서-